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 농생명산업

# 농생명 중심 지역성장 토대 조성

#### 14개 시군 설명 마무리, 7월 1일까지 신청서 접수 일반농업업·그린바이오산업·융합형 등 다채 전북 정체성 담은 조례, 6월 도의회에 제출 계획

4월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이 되는 날이다. 지난 1월 18일 전라북도라는 이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했고, 전복이 잘하는 일들과 미래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을 먼저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별법들은 12월 27일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가동 준비를 마쳐야 한다. 출범 100일을 맞아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분야의 준비상황을 다섯 차례에 걸쳐 들여다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사업으로 구체화 할 대상은 75개이며, 그 중 전복이 가장 잘하는 농생명 영역에서 가장 앞선 속도를 내며 선제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 자원을 중심으로 생산·가공 등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농생명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의 농생명산업지구 특례는 전북의 산업구조를 성장시키는 데 큰 기대를 모으는 특례 중 하나로 손꼽힌다. 농림부 장관이 가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도지사가 이행하게 되며, 식품·종자·미행물·동물의약품 등 특화산업의 생산과 가공, 유통, 그리고 연구개발의 집적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해당 지구에서 근무하는 외국

인은 체류기간을 확대할 수 있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해진다. 현재 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고, 시군 사업 보안을 거쳐 7월 1일까지 시군 공식 신청을 기다리는 중이다.

#### ▲선정유형

향후 도는 시군 신청서를 토대로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 세가지 유형에 맞춰 선정할 예정이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동안 지원 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선정유형은 식량·원예·축산 등 일반 농산업을 비롯해 스마트농업, ICT 축산, 약용작물, 농식품, 재생에너지 등이 포함된 농업생산연계형과 그린

바이오 산업 같은 혁신산업형, 또 이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융합형 등으로 구분해 지정된다. 군산의 경우, 쌀과 보리생산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 맥아 저장과 맥주 생산, 그리고 가공 서비스를 연결해 산업화 하는 구상이 개발되어 있으며, 순창과 같이 장류연구소 등 바이오산업 연구개발이 구축된 지역에는 연구개발, 교육, 인력 육성 등이 가능한 혁신산업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특별법에 담긴 조문들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의 우수한 농생명자원을 미래지향 신산업으로 육성시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의 대표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자신감을 전했다.

한편 농생명산업지구 육성과 지원과 관련 전북민의 고유한 내용을 담아 6월 도의회 제출을 목표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12월이면 조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일반현황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법조문 형식의 특별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기본 구상,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조례 제·개정 준비 등 분주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도민감사관 소통의 장 마련

### 전북자치도, 상반기 정기간담회... 제도 활성화 다짐

전북특별자치도가 도정의 사각지대를 밝혀주는 도민감사관들을 모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전북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째인 지난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청렴 도정을 위한 민간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민감사관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도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24년 상반기 도민감사관 정기간담회를 개최했다. 협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처음으로 개최된 도민감사관 정기간담회에는 양충모 초대 감사위원장을 비롯해 각 시·군 도민감사관 56명과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협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개편 내용과 지역기업과 함께하는 청렴동행 사업추진 등 2024년 청렴 주요시책과 도민감사관 운영 계획이 소개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도민감사관들의 지난 1년 동안의 감사활동을 공유하고 도민감사관이 지역 내 부정부패 감시뿐만 아니라 부패 예방활동, 도민 불편사항 해소 등 청렴 도정 구현에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민감사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은 2003

년 '명예감찰관'으로 시작해 2013년 6월 '도민감사관'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2023년 4월에 제6기 도민감사관 56명이 위촉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민감사관은 공무원의 위법·부당 사항 제보와 생활현장의 각종 불편사항 신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신고 등 청렴도정 구현과 생활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시·군 종합감사에도 직접 참여해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도정의 청렴지수를 높이는 데에 공헌하고 있다. 양충모 감사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도정 운영이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부정부패의 감사자인 도민감사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수밖에 없다"며 "도민감사관을 통해 자부심을 갖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렴지수를 높이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진철 사무국장은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정부패 근절과 비리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고, "청정 사각지대의 파수꾼인 도민감사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감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학교 언론인회가 지난 26일 제2회 전언포럼을 연 가운데, 양오봉 전북대 총장, 김준호 전북대언론인회장,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원택 의원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 총선 민심·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 마련

### 전북대언론인회 전언포럼... 신영대·이원택 의원 등과 함께 지역 상생 전략 논의 전북대언론인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 '신문부문' 전북일보 전오열 부국장 등 수상

전북대학교 언론인회(회장 김준호)가 지난 26일 제2회 전언포럼을 열고 4·10 총선에서 나타난 전북 민심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양오봉 총장과 김준호 전북대언론인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포럼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참여해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유권자들의 요구와 민심의 현 주소, 정치권의 과제 등을 제시했다. 백기태 전북대 기획처장도 발제를 통해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올해의 추진 계획 제시를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과의 상생

발전 모색하고 있는 전북대의 원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김주영 전북특별자치도 총괄지원과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책과 발전 방향, 계획 등을 발표해 이목을 끌었다. 전주MBC 이창익 국장과 전북도민일보 김성이 부장 등은 이날 토론자로 참여해 지역소멸 위기를 접한 상황에서 정치권, 대학, 자치단체가 인식하는 과제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포럼 이후 2부 행사에서는 언론인의 사명과 정론직필을 실천해 온 언론인에게 주는 '2024 전북대언론인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올해 전북대언론인상에는 전북일보 전오열 부국장(신문부문)과 연합뉴스 전북본부 홍인철 본부장(방송·통신부문)이 수상했고, 특별상에는 한겨레신문 박임근 선임기자와 JTV전주방송 이승환 보도국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양오봉 총장은 "우리 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많이 있지만 반면에 이차전지와 반도체, 방위산업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의 기업이 모여들고 있기도 하다"며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이번 포럼이 지역이 새로운 비상의 길을 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자치도-여성가족재단, '근무혁신 인센티브'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여성가족재단(전정희 원장)은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6일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근무혁신 인센티브' 신청을 받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근무혁신 인센티브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사업이다.

26일부터 진행된 '2024년 근무혁신 인센티브'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의 중소기업 12개사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기업의 유연근무, 육아휴직, 특별휴가, 일·생활균형 핵심 3분야 및 일하는 방식 변화 실천 등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근무혁신 우수기업 12개사에는 각 50만원의 근무혁신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2024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신청 접수는 6월 28일까지이며, 신청서는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https://www.jwvf.or.kr)에서 관련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7월 10일에 선정된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전정희 원장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무혁신을 실천하는 것은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기업 성장에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내 기업과 근로자들에 일·생활균형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는 지난 26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22일부터 5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처리와 강고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제21대 국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4차)을 채택했다. 전평기 의장은 폐회사에서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는 춘향제에 시민들이 춘향전의 주인공이 되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JEONJU 25th intl. film festival 2024.5.1 - 10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와 함께 하는  
나래코리아 & 전북벤처협회 콘서트  
Hosted by Narae Korea Opening Concert of The 25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4년 4월 30일(화) 오후 7:00  
전주덕진예술회관  
테너 류정필, 소프라노 송난영, 가아금 황정의, 소리 서정금, 피아노 김지연, 앙상블 소리로, 사회 설수진  
주최 주관 나래코리아 후원 전주국제영화제